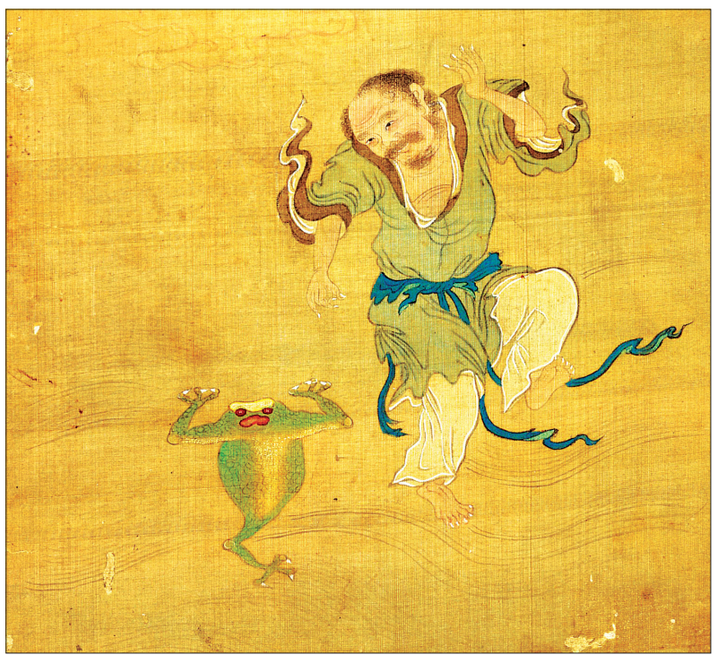
핍진한 민중에 위안 주는 존재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⑥ 두꺼비 부리는 신선, 유해섬(劉海蟾)


전조세걸필 신선도 중 유해섬(조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벽화 중 유해섬도(조선 후기).


유해섬상(중국 청대 18세기, 북경고궁박물원).

도교 신선 유해섬과 재복 상징 두꺼비
안거나 머리에 얹은 모습 사찰벽화로
남양주 흥국사·화성 용주사 등에 남아
익살스런 모습으로 민초에 위로 건네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벽화 중 유해섬도(조선 후기).

조선 후기 불교미술에는 다양한 주제가 확인된다. 이는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종교 간의 교섭과 불교의 포용력, 조금이라도 민초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자비심의 결과일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 불교미술에는 궁중미술부터 민화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선(神仙)이다. 도교(道教)를 대표하는 신선은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존재로, 죽지도 늙지도 않는 경지에 오른 이들을 뜻한다.

여러 신선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더벅머리와 누더기 차림의 이 남성은 뭐가 좋은지 헤벌쭉 미소를 짓고 있으며 두꺼비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두꺼비를 부린다'는 뜻에서 '하마선인(蝦蟆仙人)'이라 부르곤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유해섬(劉海蟾)이다. 그렇다면 유해섬은 어떤 이유로 두꺼비와 함께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재상 자리를 버리고 깨달음을 구하다

유해섬의 본명은 유현영(劉玄英)으로 전진도(全真道)라는 도교 종파의 교조로 알려져 있다. 중국 오호십국(五代十國) 시대 때 활동했다고 전해지는 유해섬은 초라한 행색과는 반대로 인간 시절에는 꽤 윤택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유해섬은 오호십국 가운데 연(燕)나라 출신으로 무려 재상(宰相) 자리까지 올라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재상은 현재의 총리와 맞먹는 고위직 관료이니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와 명예를 모두 얻은 유해섬의 집에 한 노인이 찾아오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자신을 도사라고 칭하는 노인을 유해섬은 깍듯하게 대우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유해섬에게 금화 열 닢과 달걀 열 개를 청했다. 배가 고파서 그러겠거니 생각한 유해섬은 노인에게 금화와 달걀을 건넸다.

그런데 노인은 달걀을 먹지 않고 금화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기 시작했다. 달걀은 쌓일수록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유해섬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달걀이 모두 깨지겠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노인이 껄껄 웃으면서 "자네 눈에는 이 달걀이 위태로워 보이는가? 인간이란 항상 근심과 환난의 땅을 밟고 있거늘, 그 위태로움은 이 달걀보다 심하지 않은가?"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유해섬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살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추위와 배고픔, 고통을 느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해섬이 이름을 묻자 노인은 껄껄 웃으며 "그저 '정양자(正陽子)'라고만 알아 두게나"라고 말한 뒤 길을 떠났다.

노인의 말에 충격을 받은 유해섬은 결국 재상 자리에서 물러났고 재산도 모두 가난한 이에게 나눠 준 뒤 깨달음의 길을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 유해섬은 신선 자리에 올라 불로불사의 존재가 됐다고 한다.

여기서 유해섬을 신선의 길로 이끈 노인의 정체는 바로 종리권(鍾離權)으로 도교에서 가장 높은 신선인 팔선(八仙) 중에서도 리더로 알려져 있다. 사실, 유해섬 설화를 듣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매우 많다. 아무리 자신에게 깨달음을 줬다고 한들 현재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쉽게 버릴 수 있을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설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해섬의 과감한 결단력과 더불어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도(求道)의 자세로,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재복을 부르는 두꺼비 신선

위에서 언급했듯 유해섬 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두꺼비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에 유해섬의 이름과 더불어 하마선인, 해섬자(海蟾子)라는 별명까지 모두 두꺼비 섬(蟾) 자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유해섬은 어떤 이유로 두꺼비를 동반하는 것일까? 사실, 유해섬과 두꺼비의 직접적인 인연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육연재필기(六研齋筆記)〉 등 여러 오래된 기록에 "유해섬의 상은 입을 크게 벌린 채 봉두난발(蓬頭亂髮)을 하고, 옥색 두꺼비 한 마리가 그 머리 위에 장난스럽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라는 기록을 여럿 찾아볼 수 있어 꽤 오래전부터 정립된 도상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해섬과 두꺼비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을까? 우선, 이를 알려면 동양문화 속 두꺼비를 알아야 한다. 동양의 두꺼비는 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장수와 시험, 재복(財福)의 아이콘으로도 여겨졌다. 중국에서 장원급제를 원하면 섬궁(蟾宮)의 계수나무를 꺾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섬궁이란 두꺼비가 사는 궁전, 즉 달나라를 의미하며 달나라에 있다는 신비로운 나무 역시 계수나무다.

이와 함께 울음주머니가 없는 두꺼비의 신체적 특성은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복(福), 재물(財物)이 새지 않는 부의 상징으로까지 확장된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금두꺼비 혹은 복두꺼비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더불어 유해섬도에 그려진 두꺼비의 가장 큰 특징인 세 개의 발은 삼족오(三足烏), 삼두응(三頭鷹) 등 신령스러운 동물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세상 만물인 천(天)·지(地)·인(人)과 더불어 완전성, 종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재복을 상징하는 두꺼비는 수많은 신선 중 왜 유해섬과 만난 것일까? 이는 설화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 유해섬은 부와 명예를 모두 지니고 있던 재상 출신이었다. 물론, 신선이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긴 했지만 인간 시절 그의 과거 행적과 출신 성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금화다. 유해섬 설화에는 금화가 열 닢이나 등장한다. 금화는 여타 신선 설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소재다. 유해섬에게 금화란 부가 아닌 탈속(脫俗)의 상징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금화가 소재로 나오는 유해섬 설화와 재복을 상징하는 두꺼비를 만나게 했을 것이다. 환상의 짝꿍이 탄생한 셈이다.

복을 부르는 유해섬과 두꺼비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신선도에는 두꺼비를 머리에 얹은 모습으로, 남양주 흥국사와 화성 용주사에는 유해섬이 커다란 두꺼비를 탄 모습으로 표현되며, 일부 작품에는 소중한 두꺼비를 두 손에 안고 있는 장면도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특이한 건 유해섬이 두꺼비를 꾀는 모습인데, 공주 마곡사와 같은 사찰벽화와 신선도에서 볼 수 있다. 이를 유해섬이 두꺼비를 희롱한다는 뜻의 '유해희섬(劉海戱蟾)'이라고 부른다. 이는 돈 냄새를 좋아하는 두꺼비를 낚아채기 위해 엽전을 실에 엮어 미끼로 삼은 것인데 돈을 보자마자 펄쩍 뛰는 두꺼비와 이를 보고 실실 웃는 유해섬의 미소가 사실적이면서도 익살스럽게 묘사돼 있다.

마치며

본래 불교 교리의 참된 뜻은 무소유이다. 이를 살펴봤을 때 재복을 상징하는 유해섬이 사찰벽화 주제로 표현되는 현상은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이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찰벽화 주제로 표현되는 유해섬은 당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자 하는 불교계의 따뜻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김용덕 작가

